

○● 특 집 도서관과 독서활동

책 속에서 길을 찾다

1. 문열기

얼마 전 사서 출신인 로라 부시의 기사를 보았다. 교사였던 딸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 선생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독서를 좋아하게 되는 소년의 이야기인데 판매수익금은 비영리 교육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홍보용 사진에 머물지 않을 것 같은 그녀의 활동이 마음에 들어온다.

로라 부시의 기사를 보면서 페트리샤 폴라코가 쓰고 그린 책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떠오른다. 트리샤가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책표지에 떨어뜨린 꿀맛을 맛보게 하며 글자를 익힐 나이가 되었음을 축하해주던 첫 장면이 인상적인 그림책이다. “지식은 달콤한 꿀을 만드는 벌과 같아 책장을 넘기면서 지식을 쫓아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트리샤는 글자를 제대로 읽거나 쓸 수 없는 난독증으로 고문같은 글읽기와 힘든 시간을 보낸다. 반 친구들에게 지독한 놀림을 받으며 자신감을 잃어가던 트리샤의 어려움을 알게 된 폴커 선생님과 독서지도 담당인 플레시 선생님의 도움으로 드디어 글자를 읽게 되던 날, 집으로 뛰어가 품안에 안은 건 할아버지가 책 위에 떨어뜨려 맛보게 했던 꿀병이었다. 꿀병과 책을 품에 안고 하는 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너무 행복했



김금란
인포어린이도서관 본부장
kkr100@hanmail.net

페트리샤 폴라코가 난독증 소녀에서
어린이책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읽기의 세계,
독서의 세계로 건너갔기 때문이다.

습니다.”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기쁨이 한 순간에 마음으로 들어오는 말이다. 누구에게는 쉬운 책읽기가 어떤 이에겐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벽이 될 수 있다는 걸 돌아보게 한다. 폴커 선생님의 애정어린 관찰과 전문화된 독서지도 담당선생님의 협력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특히 학교 선생님인 어머니도 도와주지 못했던 난독증 문제를 선생님이 발견하고 극복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도 신선하다. 페트리샤 폴라코가 난독증 소녀에서 어린이책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읽기의 세계, 독서의 세계로 건너갔기 때문이다. 그 다리를 놓아준 폴커 선생님을 통해 사람이 희망이 되는 증거로 다시 한 번 마음에 담으며, 책에서 길을 찾은 책 속의 주인공을 만나보려 한다.

2. 펼치기

존 버닝햄의 “작은 나”가 외로움과 때론 친구들의 소외 속에서도 삶의 의욕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알도』 때문이었다. 알도가 책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읽던 나에

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작은 나가 누워있는 잠자리에서 알도가 책을 읽어주는 대목이다. 그것도 “내”가 잠들 때까지 말이다. 책이 책을 읽어나가는 이 중첩된 이미지는 무엇일까? 삶과 책이 하나로 넘나들며 서로를 지켜내는 책의 힘, 난 그 속에서 길을 찾는다.

『까마귀 소년』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등갓길을 오갈 때 길가의 외진 나무들 속에서 울어대는 까마귀를 친구로 만들어 버린 일이며 눈길조차 주지 않던 반 친구들에게 소년이 자연에서 읽어낸 기호를 까마귀 소리로 전달하는 장면은 소년이 인생의 상징을 이해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문고리를 잡는 역할을 한 셈이다. 자연을 읽고 듣고 전하는 경험도 까마귀 소년의 도서관이었던 거라고 확장시켜 생각하게 한다.

주먹만한 『주먹이』가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폴짝 뛰어나와 했던 흥미진진한 여행 또한 책 속에서 길을 찾는 상징을 보여준다. 큰 날개를 펼친 새의 날카로운 발톱에 잡혀 바다 위를 날아보고, 음메 소리에 귀청이 떨

어질 것 같은 소의 길고도 긴 내장을 통과해서 소똥에 섞여도 보고, 철렁철렁 파도를 자유롭게 오가는 커다란 물고기의 내장에 들어가 보기도 한다. 아버지를 만나 유쾌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주먹이는 신체의 한계에 갇혔더라면 도저히 짐작하기 어려웠을 그 많은 경험들을 어찌면 책을 통한 다양한 경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런지.

장애의 슬픔에 녹아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절망하기 보다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실천했던 『쿠슬라』도 떠올려 본다. 눈이나 맞추며 웅알이나 할 나이의 아기에게, 그것도 장애가 있다는 아기에게 정성 들여 책을 읽어주었던 쿠슬라 엄마, 아빠의 목소리 곁은 어떤 무늬였을까? 이야기방에서 들려주는 우리 사서들의 마음도 그러하다면 좋겠다. 아이에게 들려준 목소리 속에서, 읽어 준 한 권의 책에서 아이들은 어느 보약 못지 않은 에너지를 받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에서 장서 못지않게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요즘이다. 지역의 복지관에 위치한 인표어린이도서관의 경우 특히 그렇다. 일반 공공 도서관과 달리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 주 이용자인 어린이와 어머니들과 대면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따라 도서관의 이용정도가 큰 차이가 난다. 본부에서 장비를 다 끝낸 도서를 보내

준다고 담당자업무가 간단한 건 아니다. 인표어린이도서관 담당자는 이용지도, 대출 반납업무, 어린이독서프로그램, 어머니 독서동아리, 자원활동가 관리 등 다양한 도서관 업무를 관리, 진행한다. 이런 종합적인 도서관 업무를 경험한 인표어린이도서관 출신 사서들의 경우, 관장, 사서 교사, 어린이 전문사서로서 도서관의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현재 인표어린이도서관에서 가장 큰 과제는 전담 인력의 확보 문제이다. 전담인력에 대한 기관의 지원과 함께 전담자 스스로의 열정에 따라 도서관 운영은 큰 차이를 드러내므로 도서관도 사람에 희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이 복지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보면 복지관의 여러 인프라 속에서 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을 개입시키며 능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전환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장선인표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권하고 읽어주기 어려운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독서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임 자녀나 한부모 세대의 자녀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서력의 향상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도 생기고
어린이가 처한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
더욱 그 의미가 있다.**

어린이의 상황을 알게 되어 적절한 복지제도와 연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독서력의 향상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도 생기고 어린이가 처한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 더욱 그 의미가 있다. 지역의 복지관에 위치해 있는 인포어린이도서관의 여건이 장점으로 바뀌는 사례이다.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도서관 활동으로 측면 지원하여 어려운 여건에 놓인 어린이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에서 조차 소외되어 가난의 대물림에서 씩씩하게 걸어 나오도록 돕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도서관을 살아 숨쉬게 하는 사람에 대해 씩 웃게 만드는 또 다른 그림책 한 권을 불러내 볼까? 올해 출판된 그림책 『도서관에 간 사자』다. 웬 사자? 판타지적인 장치로 도서관에 들어온 사자 한 마리가 왜? 어떻게?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도 불편하지 않게 읽히는 것은 이 책이 거두고 있는 판타지 장치의 성공이 아닐까 싶다. 이용 규

직을 여기지만 않는다면 사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관장의 운영지침 덕분에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 사자의 활약을 보면 인포어린이도서관 뿐만 아니라 도서관 곳곳에서 도서관식구가 되어버린 자원활동가들이 떠오른다.

도서관에 온 첫날, 사자는 목록카드함을 열고 코를 쿵쿵 대며 냄새를 맡아보는데, 전산화로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카드의 냄새가 전해질 것 같은 장면이다. 푸짐한 긴 꼬리는 백과사전의 먼지를 터는데 정말 안성맞춤이다. 연체회원에게 보내는 안내편지에는 풀 대신 긴 혀로 쓱쓱 침을 발라주고 키 작은 아이들이 책꽂이 위 칸 책을 뽑을 수 있도록 사다리가 되기도 한다. 이야기 방에서는 아이들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폭신한 등받이다. 신간에 머리를 비비며 좋아하는 사자의 얼굴은 바로 우리들의 얼굴과 겹쳐져 떠오른다. 덤으로 한 가지 더! 사자를 반기는 다양한 사람들이다. 사자의 앞다리 한 마디에도 을까 말까하는 작은 키의 유아부터 지팡이에 의지해 책을 들고 있는 할아버

『도서관 사서와 산적』에서 글을 읽을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책 한 권 읽어준 어른이 곁에 없었던 산적들이 대출카드로 사랑을 얻고 도서관에서 흥미진진한 연극을 하며 아이들을 도서관에 불러 모으는 배우가 되는 장면은 어린이도서관을 끌여가는 전담자를 더욱 그림게 한다.

지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도서관의 모습도 놓치기 아까운 장면이다.

『도서관에 간 사자』를 보면서 우리 분관뿐만 아니라 많은 도서관에 있는 자원활동가의 역할을 떠올려본다. 어린이도서관을 오롯이 생각하고, 열중하며 모색하는 전담자에 대한 많은 갈증을 느끼는 처지에서 보면 어린이와 눈높이를 맞춘 사자 한 마리의 그 순수가 그림다. 이야기시간 동안 큰 덩치를 앞으로 수그리며 듣다가 끝났다는 말에 아쉬운 마음을 담아 울어버린 그 모습도 귀엽다. 그저 내 것을 꺼내 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라서 더 좋다. 이야기 방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도서관 사람들과 소통도 하며 도서관과 쌍방향적인 관계맺음을 하여 가는 자원활동가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펼쳐보게 되는 책이다. 한 가지 아쉽다면 그림의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 있긴 하다. 앞장과 뒷장에서 달라지는 도서관 입구의 계단

층수, 있다가 없어진 도서관 현관 혹은 머릿돌, 유리였던 출입문이 유리 아닌 것처럼 묘사된 것, 맥비씨의 소매모양이 바뀐 것 등, 어느새 책선정 기준으로 찾게 되는 옥에 티 같은 아쉬움을 숨길 수 없다. 하지만 그 옥에 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도서관 사자를 찾아 가을맞이 도서관 탐방에 나서보시라고 권하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

도서관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한 권의 책을 빼놓기 어렵다. 매력적인 도서관 사서 덕분에 산적 생활을 청산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된 『도서관 사서와 산적』이다. 글을 읽을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책 한 권 읽어준 어른이 곁에 없었던 산적들이 대출카드로 사랑을 얻고 도서관에서 흥미진진한 연극을 하며 아이들을 도서관에 불러 모으는 배우가 되는 장면은 어린이도서관을 끌여가는 전담자를 더욱 그림게 한다.

3. 작은 마침

우리 어린이들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도록 걸어서 갈 만한 거리의 복지관에 도서관의 등지를 틀고 펼친 활동이 올해로 17년을 맞는다. 개관이후 독서캠프를 비롯하여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표어린이도서관에도 변화들이 있었다.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이 크게 변한 곳도 있고 전담사에서 전담인력으로 바뀐 곳도 있다. 주변에는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많이 태어나고 있는 것도 큰 변화의 하나다. 새로 들어서는 크고 작은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나 도서관 가족들에게나 큰 기쁨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곁에서 인표의 한 분관은 5분 거리에 위치하게 된 새 도서관을 친구로 둔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운영포기에 이른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인표어린이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다른 도서관들도 새것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안타까운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반짝거리는 새 도서관이 기존의 도서관을 더 허름하게 만드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닐테니까 말이다. 작아도 행복하고 커도 행복하고, 많아도 행복하고 적어도 행복한, 각자의 행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며 어깨두

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나누어 갖고 싶다.

반짝이는 새 도서관 못지않게 손때 묻은 서가와 매트 속에 있는 17살의 인표어린이도서관 정신을 지역에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도서관이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랑가나단의 가르침을 떠올려 본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도서관을 통해 애써왔던 활동들을 마중물로 여겨 오래된 도서관도, 새로 들어선 도서관도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 속에서 도서관이 지향하는 역할을 함께 모색하였으면 한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도서관과 이용자의 만남, 지역문화와 도서관문화의 만남, 도서관과 복지관의 만남들이 역동적으로 넘나들며 섞이는 여울목. 유기체인 도서관, 그 안에 인표어린이도서관이 있고 그 안의 한 점으로 일하는 담당자로서 또 한번 감사한 날이다. (인표)